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사람이 곧 우주이다

학승이 물었다.
“조사의 뜻과 교의 뜻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겨우 출가하여 계도 받지 않았는데 가는 곳마다 물어대는군.”

問 祖意與教意同別 師云 纔出家未受戒 到處問人

선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이다. 즉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고 그 성품을 보면 곧 부처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처님 재세시에 출가자들이 석존 교설을 단 한번 듣고 그 자리에서 즉시 깨달음을 얻었던 가풍을 그대로 잇는 것이다. 석존 열반 후에는 한동안, 반드시 수행해서 때를 제겨야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교설, 즉 소승불교가 확장되었으나 나중에 대승불교에서 '중생이 곧 부처'라는 사상이 높이 부각되었고, 선불교에서는 '깨달으면 곧 부처'라는 재세시의 가풍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이다.

부처님의 초기 설법이 수행에 역점을 둔 불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원시 경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붓다 앞에서 깨달아 얻었던 성문 4과의 경지는 무시되고, 수행의 측면만을 강조했던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오해는 많은 세월 동안 계속 되었고, 지금 한국 불교도 그런 경향이 다분하다. 당나라 조주 스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듯하다. 그래서 이런 질

문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조주 선사는 간단한 한 마디로 초학자의 허접한 망상을 잘라버린다. 도가 높을수록 질문이 없어진다. 질문이 일어나면 그것은 곧 망상이 일어난 것이다. 질문이 일어나면 잘라버려라. 도가 높아지면 질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 것인지 곧 알게 될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성인(聖)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범부(凡)가 아니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범부(凡)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성인(聖)이 아니다.”
학승이 물었다.
“범도 아니고 성도 아닐 때는 어떻게 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훌륭한 선승(禪僧)이다.”

問 如何是聖 師云不凡 云如何是凡 師云不聖 云不凡不聖時如何 師云 好箇禪僧

성인에 대해서 묻는가? 그렇다면 성인에 대해서 감히 말하지 못한다. 성인은 깨끗함 그 자체다. 진리로 돌아간 사람, 감정에 흐르지 않고 고요한 세계를 체득한 사람, 범위를 행할 필요가 없는 사람, 24시간 마음이 항상 맑은 사람, 누가 뭐라 하던 중도(中道)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인인데 그에 대해서 어찌 언설로 표현을 한단 말

인가? 언설로 표현해서 정해 놓으면 그는 성인이 아니다. 조주 선사는 성인에 대해 범부가 아니라고만 설명했다. 그것으로 성인을 알 것이지 더 이상은 말하지 못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진정한 장소, 진정한 경지, 진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범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범부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심성은 이미 부처이다. 자신이 참 부처이지만, 아직 진정한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 범부라는 말로 치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하니 범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못한다. 조주 선사는 다만 '성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뿐이다. 그것으로 범부를 알라는 말이다. 짧지만 가능한 진실을 담고 있는 선적 표현이다.

그런데 범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사람이 있다면 그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조주 선사는 '그는 훌륭한 선승'이라고 말했다. 그렇다. 선사들은 범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평범한 인간 그 자체이다. 사람은 사람으로 죽는다. 사람을 신보다 아래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은 인격 모독이고, 또한 사람을 사람보다 높은 성인으로 표현해도 그것은 사실 망설이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고 존귀하다. 사람은 우주의 자식이다. 곧 사람이 우주이다. 곧 사람은 우주의 주인이다. 그런 사유가 있다면 어찌 사람을 범부, 혹은 성인으로 치부할 것인가? 범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라면 그야말로 그는 정말 훌륭한 선승(禪僧)이 아닌가.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㉔



그대의 주(主)를 따로 찾지 말라 그대가 바로 그대 자신의 주 (법구경)

그때 내가 들고 다닌 여행 가이드북에는, 그 두꺼운 부피만큼이나 많은 성자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었다. 한 분 한 분, 다 나름의 깨침과 나름의 자비를 갖추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스스로의 깨침을 구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구도여행이 그런 것이고, 순례자의 길인 그런 것이리라.

그런데 나는 그들 중 어느 누구의 문안으로도 들어간 일이 없다. 문 밖에서 서 문을 노크한 일도 없었다. 그럴진대 왜 그 무거운 가이드북을 들고 다녔던 것일까? 의아하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어느 때 한 길벗이 그런 질문을 내게 제기하였다. 왜 당신은 성자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는가?

왜 그랬을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였다.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우물 속에 빠져 있다고 하자, 우물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든, 어떤 성자든, 어떤 수행자든 찾아뵙는다고 하자. 그래서 그가 우물 속에 빠져있는 나를 그의 오른손으로 달랑 들어올려서 우물 밖으로 건져내줄 수 있는 것일까? 그렇게 해주리라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정도라면 또 모르지만 ---,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것이다. 겨우 우물 속에서 우물 밖으로 나가는 길에 대해서 몇 마디 해주는 정도를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길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말이다. 어떻게 수행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 이르게 된다는 식의 이야기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그 정도라면,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는가. 익히 아는 것 아닌가. 문제는 이미 아는 만큼이라도 실천해 가고 있는가 하는 데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답은 나 밖의 다른 어떤 성자에게도, 어떤 수행자에게도, 어떤 스승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해답 역시 내게 있는 것이다. 우물 속에서 벗어나 우물 밖으로 나가려는 생각만 있다면 그 길은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승을 찾는 데에서 출발할 일이다.

“그대의 주(主)를 따로 찾지 말라. 그대가 바로 그대 자신의 주 / 자기를 조복(調伏)받은 자 / 참모로 만나기 어려운 주인을 찾은 것이다.”(등하 율금, 《법구경》, 법공양, 13쪽)

이 부처님 말씀은 우리의 수행과 우리의 삶에 주춧돌로 삼아야 할 말씀이다. 그러나, 그분이 진정 우리의 스승이라고 한다면, 부처님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할 것이다.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 / 자기야말로 자신이 돌아가 의지할 품 / 그러나, 너의 고삐를 내가 잡아라 / 말 주인이 말의 고삐를 잡듯”



그림 · 박구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물론 그렇게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필요한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라 말하는 대신, “스승이야말로 자기 주인이라” 말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 같다. 더욱이 그분이 하는 말이 “나의 법이 최고의 법이다. 내가 최고의 스승이라”고 말한다면, 위험하기조차 한 일이다. 믿음이 그러한 사실을 보증하는 것일까? 어떻게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져넣어도 좋을 주인이라 보증할 수 있을까? 그런 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지뢰를 밟지 않고, 지뢰가 지뢰인 줄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의 주인을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한다. 문제는 밖에서 벗어나 우물 밖으로 나가려는 생각만 있다면 그 길은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승을 찾는 데에서 출발할 일이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 <20>

삼학-③ 혜학(慧學)

혜학은 세상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그 진실에 따라 살아가는 바른 지혜의 실천을 말한다. 여기서 '진실의 파악'은 사성제의 실천과 연기(緣起)의 자각,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진여(眞如)의 파악을 의미한다.

삼학의 학(學)은 산스크리트어 쉬크샤(sikṣā)를 번역한 말로 '배움', '연구' 등의 뜻을 지니고 있는 말이다. 하지만 쉬크샤는 단순히 '배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것'의 뜻도 내포하고 있다. 즉 학(學)은 훈련의 반복을 통해 몸에 습관을 들인다는 뜻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수행을 통해 생활 속에 구체화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계학(戒學)을 수행함으로써 정학(定學)에 들어서게 되고, 정학을 수행함으로써 혜학에 이르게 된다.

불교 최후의 목적은 깨달음의 지혜를 얻는 것에 있다. 그러나 지혜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초보적인 깨달음의 지혜, 성문아라한(聲聞阿羅漢)의 지혜, 벽지불(辟支佛; 緣覺)의 지혜, 보살의 지혜, 부처님 최고의 지혜 등이 그것이다. 또 지혜를 의미하는 다양한 용어도 존재한다. 지혜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만 대략 20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용어는 프라즈나(prajñā)와 즈나나(jñāna)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지혜로 번역되지만 당나라 시대 현장(玄奘: 602-664)은 프라즈나를 혜(慧)로, 즈나나를 지(智)로 번역했다. 즉 이 두 가지는 지혜를 뜻하지만, 서로 조금씩 다른 의미를 품고 있다.

먼저 혜는 넓은 의미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아비달마(阿毘達磨)》에 의하면 선(善)·악(惡)·무기(無記)의 모든 지적인 작용을 포함해 범부의 낮은 지혜[劣慧]부터 깨달음을 얻은 각자(覺者)의 최고 지혜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여기서 무기란 선과 악의 분별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지(智)는 주로 깨달음의 지혜에 사용된다. 사성제를 체득한 지혜[盡智]와 사성제를 체득했기 때문에 다시 체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지혜[無生智], 모든 분별을 끊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바른 지혜[正智] 등은 모두 아라한의 지혜이고, 십바라밀의 하나인 자바라밀(智波羅蜜)은 가장 높은 단계의 보살의 지혜이며, 네 가지 지혜[四智], 즉 성소작지(成所作智)·묘관찰지(妙觀察智)·평등성지(平等性智)·대원경지(大圓鏡智)와 이것에 법계체성지(法界體性智)를 더한 오지(五智)는 모두 보살의 깨달음의 지혜이다. 이밖에 성문, 연각의 지혜인 일체지(一切智), 보살의 지혜인 도종지(道種智), 부처님만의 지혜인 일체종지(一切種智)도 깨달음

의 지혜에 속한다.

이러한 지혜는 크게 유분별지(有分別智)와 무분별지(無分別智)로 나뉜다. 유분별지는 그 지혜가 그 대상을 의식하고, 대상을 차별해 사유 및 판단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무분별지는 그 지혜가 대상을 의식하지 않고, 대상과 일체가 돼 있는 경우이며, 최고의 깨달음의 지혜를 가리킨다.

불교의 이상은 일체법이 무아(無我)이며 무자성(無自性)이라는 도리를 이론적으로 바르게 알고, '무아무자성'의 이치에 따라 '무소독무집착'의 태도를 가짐으로서 무애자재(無碍自在)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최고의 깨달음의 지혜를 말하며, 대지(大智)라고 한다. 반야바라밀도 바로 대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지만 이 최고의 지혜를 얻은 부처와 보살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 지혜를 갖고 중생구제의 자비활동을 행한다. 이때 그 지혜는 대상으로서의 중생을 의식하는 유분별지가 된다. 하지만 이 지혜는 최고의 무분별지를 얻은 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유분별지와 구별해서 유분별후득지(有分別後得智)라고 한다. 이처럼 대지(大智)와 대비(大悲)의 지혜 활동을 구비하는 것이 불교의 이상목적이다.
日 龍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최고의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강화사자발악쑥양초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매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공양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악쑥초 90cm	② 악쑥초 연봉 원기둥	③ 악쑥초 돈타레	④ 악쑥초 밀대	⑤ 악쑥초 1호	⑥ 악쑥초 2호	⑦ 악쑥초 3호	⑧ 악쑥초 4호	⑨ 악쑥초 1호 반야심경	⑩ 악쑥초 2호 반야심경	⑪ 악쑥초 3호 반야심경	⑫ 악쑥초 4호 반야심경	⑬ 악쑥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악쑥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호랑이, 용)	⑮ 악쑥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금호랑이, 금호)
×90cm	7.0 ƒ × 34cm	5.6 ƒ × 27cm	4.7 ƒ × 25cm	5.9 ƒ × 18cm	5.9 ƒ × 14cm	4.7 ƒ × 13cm	4.7 ƒ × 10cm	4.7 ƒ × 10cm	4.7 ƒ × 10cm	4.7 ƒ × 10cm	4.7 ƒ × 10cm	4.7 ƒ × 13cm	4.7 ƒ × 13cm	4.7 ƒ × 13cm

만동밀납양초

① 밀납초 90cm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③ 밀납초 돈타레	④ 밀납초 밀대	⑤ 밀납초 1호	⑥ 밀납초 2호	⑦ 밀납초 3호	⑧ 밀납초 4호	⑨ 밀납초 1호 반야심경	⑩ 밀납초 2호 반야심경	⑪ 밀납초 3호 반야심경	⑫ 밀납초 4호 반야심경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호랑이, 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금호랑이, 금호)
×90cm	7.0 ƒ × 34cm	5.6 ƒ × 27cm	4.7 ƒ × 25cm	5.9 ƒ × 18cm	5.9 ƒ × 14cm	4.7 ƒ × 13cm	4.7 ƒ × 10cm	4.7 ƒ × 10cm	4.7 ƒ × 10cm	4.7 ƒ × 10cm	4.7 ƒ × 10cm	4.7 ƒ × 13cm	4.7 ƒ × 13cm	4.7 ƒ × 13cm

원기둥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영리 35-16